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경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 ~ 10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롭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악행

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은혜로 덮으시는 이유는 순전히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서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한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 모습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을(우리의 첫사랑 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2. 아직 경험하지 않은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성품의 의지하여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2.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하소서.